

# ‘20년 숙원’ 광주 양동시장역 외부 엘리베이터 첫 삽

지하철 1호선, 지상으로 연결…내년 5월 완공  
고령층·장애인 등 이동권 보장 새 시대 열어

광주 도시철도 1호선에서 20년 넘게 ‘숙원사업’으로 불렸던 양동시장역에 드디어 지상 엘리베이터가 설치된다.

남은 6개월간의 공사가 마무리되면 광주는 비로소 1호선 전역에서 차별 없는 동선을 갖추고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는 도시로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될 전망이다.

9일 광주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구 양동시장역 지하 1층 대합실에서 ‘양동시장역사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착공식’이 열렸다.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조익문 광주교통공사 사장, 장애인 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20년 숙원의 첫 삽’을 함께 지켰다.

양동시장역은 지하철 2004년 1호선 개통 당시부터 지상 연결 엘리베이터가 없는 유일한 역이었다.

휠체어 이용자와 고령층은 계단과 경사로를 이용할 수 없어 사실상 역사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고, 인근 시장 방문객 역시 반복적인 불편을 호소해 왔다. 장애인 단체들은 수차례 설치를 요구하며 시정 앞

집회, 의견서 제출 등을 거듭했지만 사업은 예산·구조 문제로 계속 표류했다.

그러다 광주시는 7억5000만원을 투입해 지상과 지하 1층을 직접 연결하는 승강기를 설치하기로 계획했다. 지난 5~9월 설계 용역을 마친 뒤 이날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으며, 완공 시점은 내년 5월로 예상된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1호선 전 구간이 ‘1역사 1동선’, 즉 장애인·고령층·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지상부터 승강장까지 이동 가능한 구조를 갖추게 된다.

광주교통공사는 해당 역사의 지상 엘리베이터 설치가 단순히 편의시설을 넘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도시의 체계와 철학이 완성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조익문 광주교통공사 사장은 “착공식을 열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그간 양동시장역은 2004년 개통 이래 광주 지하철 1호선 중 공사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다. 지난 21년간 교통약자들에게 참 죄송한 시간이었다”며 “차별 없는 이동권을 향한 간



9일 오전 광주 서구 양동시장역 대합실에서 열린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착공식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과 강수훈 광주시의원, 조익문 광주교통공사 사장, 장애인 단체 대표 등이 착공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광주시는 7억5000만원을 투입해 지상과 지하 1층을 직접 연결하는 승강기를 설치하며 완공 시점은 내년 5월로 예상된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광주 도시철도 1호선 전 구간이 ‘1역사 1동선’, 즉 장애인·고령층·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지상부터 승강장까지 이동 가능한 구조를 갖추게 된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절한 염원이 이뤄졌다. 이제 정성껏 시공해 빠른 시일 내 엘리베이터가 안전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광주시는 이번 사업이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동시장과 인근 상권 접근성이 높아지면, 지하철 이용객 증가와 시장 유입 확대가 동반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강기정 시장은 “지역 장애인단체와 시민들의 숙원 사업이 이날 드디어 시작됐다. 지속된 불편함 속 고민의 고민을 거듭하는 가운데 늘 아쉬움이 남아 있었다”며 “지상 엘리베이터 설치를 통해 모든 시민들의 이동권이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장애인단체도 숙원이었던 양동시

장역 지상 엘리베이터 설치가 이뤄지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배영준 광주 장애인 활동가는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수없이 요구하고, 좌절하고, 다시 요구했던 양동시장역 엘리베이터 설치가 마침내 첫 삽을 떴다”며 “착공식은 단순히 공사가 시작된다는 의미를 넘어 한 세대가 겪어 온 이동권 차별에 맞선 투쟁의 작은 승리이며,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길의 출발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강수훈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1)도 2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양동시장역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착공을 환영하며, “장애인과 어르신,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진정으로 보장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 “교육·산업·지역 연계 AI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전남 유치 등 급변하는 지역 환경에 대응하는 전남교육의 AI 인재 양성 방안이 제시됐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9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 에너지 교육밸리’ 조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전남형 AI 인재 양성 비전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교육·산업·지역이 연계되는 AI 인재 양성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비전은 ‘AI 교육 대전환’을 통해 미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이루고, 전남 학생들이 가장 먼저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3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전남의 미래 산업을 견인할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에너지경제고 설립을 추진하고 창의융합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스텝퍼드 인재들이 실리온밸리를 이끌었던 것처럼, 고교·대학·산업으로 이어지는 ‘AI 에너지 인재 사다리’를 구축해 한국에너지공단·GIST·전남대 등과 연계한 체계적인 인재 양성 구조를 만든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AI·에너지 교육밸리’ 비전 선포  
에너지경제고 등 K-AI 시대 주도할 3대 핵심과제 추진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9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AI·에너지 교육 밸리’ 구축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다음은 복안이다.

특히 ‘2030 미래형 교실’을 기반으로 AI·수학·과학·데이터 교육을 강화하고, 에너지경제고·과학중점학교·AI융합중심고를 전남형 AI 특화 교육의 중심축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또 AI 산업 확대에 전기·냉각·정밀제조·모빌리티·반도체·클라우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기술인력이 필요한 상황을 반영해 직업계고 재구조화와 마이스터고 육성에 나선다.

산·학 연계 시스템을 강화해 현장실습

·취업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진로 경로를 마련하고, 전문대학·폴리텍대학·지역 산업체와 연계해 전남을 AI 산업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업의 지역 이전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교육환경’이라는 판단에 따라 국제적 기준의 교육체제를 구축한다. 초·중·고 IB교육 연계를 확대하고, 외국인 학생과 전학생을 지원하는 (가칭) 다문화통합지원서비스센터를 설립해 정착·학습·진로를 종합 지원할 예정이다.

전남교육청은 기존 교육발전특구 모델과 연계해 권역별 산업 구조와 맞춤형 미래교육 모델을 개발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서부권은 ‘AI·신재생에너지 중심’ △중부권은 ‘인공태양·모빌리티 중심’ △동부권은 ‘우주항공산업·AI 문화콘텐츠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대중 도교육감은 “전남은 AI 데이터센터, 국가 AI 컴퓨팅센터,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로 동북아 AI 에너지 밸리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 기회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 전국 최초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조례’ 제정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전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청소년 문화거리를 제도적으로 조성·육성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청소년 문화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열었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사진)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및 육성 조례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청소년의 문화활동을 뒷받침하는 공간 조성과 더불어 청소년 주도 콘텐츠 개발, 문화 전문 인력 양성, 축제·행사 활성화, 문화시설 확충 등 전반적인 문화정책 방향을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문화거리 조성 과정에서 청소년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명시해 정책 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 시행으로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운영하는 프로그램이 확대되면, 기존의 공급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참여형 청소년 문화정책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하고, 이에 따라 숙박·외식·관광 등 지역 상권과 관광 산업 전반에 긍정적 파급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균 의장은 “이번 조례는 청소년을 지역의 주인공으로 세우는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청소년기에 지역 문화를 경험하고 직접 기획하는 과정은 자연스럽게 지역에 대한 애정을 형성하고, 결국 지역 정착으로 이어져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청소년 문화거리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청소년의 창의성과 에너지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플랫폼”이라고 덧붙였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목포대·순천대 통합 교명 ‘국립김대중대학교’ 제안

전남 국회의원들 “인권·평화 등 통합 국립대 정체성 상징”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9일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 통합대학의 교명으로 ‘국립김대중대학교’를 공식 제안했다. 교육부가 두 대학이 요구해온 ‘연합형 통합’ 방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통합 절차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교명 논의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신정훈·김원익·조계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전남 지역 의원 10명의 서명을 담아 “전남 출신으로 민주주의·인권·평화·통합·IT 시대를 이끈 김대중 대통령의 이름은 통합 국립대학의 정체성과 미래 전략을 가장 분명하게 담아낼 상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남의 역사적 정체성과의 부합,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학 브랜드 가치, 순천·목포를 넘어 전남 전체를 포괄하는 상징성, 정보고속도로 구축으로 AI·디지털 시대를 연 미래지향성을 근거로 제시하며 교명 적합성을 강조했다.

세계 주요 대학이 인문학 명칭을 사용한 사례도 언급됐다. 의원들은 조지워싱턴대, 조지메이슨대, 제임스메이슨대 등을 예로 들어 “세계적으로도 보편적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교명은 양 대학 구성원 의견수렴과 공모 절차를 거쳐 공식 결정된다. ‘국립김대중대학교’ 제안이 실제 명칭으로 채택될지 관심이 모인다.

김문수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두 대학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해 ‘연합형 통합’ 모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본부가 있는 캠퍼스에는 통합 총장을, 본부가 없는 캠퍼스에는 ‘캠퍼스 총장’을 두는 방안도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통합 국립대학은 전남의 미래 배너를 여는 기반”이라며 “국회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 광주 광산구 첫 시립 하남도서관 문 열어

광주 광산구의 첫 시립도서관인 하남도서관이 9일 문을 열었다.

북구의 무등, 남구의 사직, 동구의 산수에 이은 네 번째 시립도서관이다. 서구에는 광주 대표도서관이 건립 중이다.

광주시는 총사업비 292억원(국비 107억원, 시비 185억원)을 들여 연면적 6916㎡,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시립 하남도서관을 건립, 9일 개관식과 함께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정식 운영은 내년 1월이다.

이날 열린 개관식은 강기정 시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광산구 최초 시립도서관인 하남도서관은 종합자료실과 열람실, 어린이실뿐 아



니라 어린이문화교실·강좌실·다목적실 등을 갖춰 독서교육, 문화교양, 역량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립하남도서관은 한 달여 시범운영 기

사업비 292억 투입…지하 1층~지상 4층 규모 건립  
열람실·문화교실 등 갖춰 교육·교양 프로그램 운영

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정식 운영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도서 대출·반납이 불가능하지만, 도서 열람과 전시 프로그램 관람 등 도서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시립하남도서관은 한 달여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정식 운영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도서 대출·반납이 불가능하지만, 도서 열람과 전시 프로그램 관람 등 도서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개관 기념 다양한 전시·체험행사가 연

말까지 이어진다.

주요 행사는 크리스마스 포토존 운영, 지역화가 작품 전시, 크리스마스·겨울 관련 어린이 도서 전시, 그림책 ‘크리스마스 선물’ 삽화 전시 등이다. 노벨문학상 작품 등 도서 추천 행사도 마련됐다.

자세한 내용은 시립도서관 누리집(https://citylib.gwang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기정 시장은 “광산을 대표하는 하남도서관 개관으로 광주는 ‘1자치구 1시립도서관’ 시대를 맞았다”며 “많은 주민들이 책과 문화를 즐기고, 하남동이 지식과 문화의 양남개를 갖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정성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